

대한결핵협회 결핵연구원 세계보건기구 공식협력기관 (WHO Collaborating Centre)으로 지정

편집부

대한결핵협회 결핵연구원은 지난 5월, 세계보건기구로부터 1995년 5월부터 공식협력기관(WHO Collaborating Centre)으로 지정받아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내의 결핵역학조사, 결핵관리훈련, 결핵균 내성감시체계 수립을 위한 제반 업무를 수행하는 등 국제결핵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이는 아시아 국가중 1983년 8월 12일 일본의 결핵연구소(결핵역학, 훈련에 관한 협력기관), 1989년 8월 16일 중국의 중국결핵 및 종양연구소(결핵화학치료 협력기관)에 이어 세번째로 결핵분야에서 WHO 협력기관으로 공식 지정된 것이다.

구체적으로 협력기관으로 지정되었을 시의 위상과 활동범위, 사업계획을 알아 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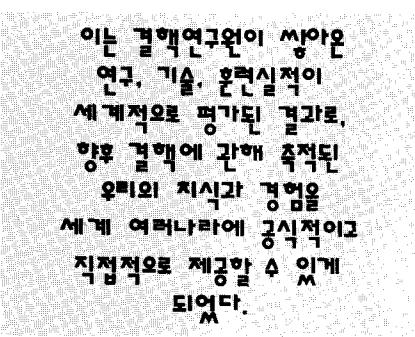
1. 협력기관으로 지정되었을 시의 위상

WHO 협력기관은 과학적이고 전문적

인 능력의 뒷받침하에 WHO 가맹국간의 정보와 서비스 및 자문을 제공함과 아울러 연구와 훈련을 통한 집단적 기술협력의 증대를 도모함으로써 그 지역사회나 세계 인류건강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결핵연구원이 결핵에 관한 연구와 훈련 및 참고 실험실로서 WHO 협력기관으로 지정됨은 결핵문제해결을 위한 경제적, 기술적인 수혜국의 입장에서 연구, 훈련, 기술수준을 세계 여러나라에 제공할 수 있는 입장임을 세계적으로 공인받게 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가 경제, 사회적인 발전 방향에 따른 국제사회에서의 지위향상과 더불어 그동안 결핵연구원이 쌓아온 연구, 기술, 훈련실적이 세계적으로 평가된 결과로, 향후 결핵에 관해 축적된 우리의 지식과 경험을 세계 여러나라에 공식적이고 직접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되었고, 이를 통해 인류복지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위상을 국제적으로 더욱 증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2. 활동범위

(1) WHO 요청시 동질성 검사, 세균분류, 약제 감수성 검사 그밖의 세균검사, PPD RT23의 보급 등과 같은 결핵연구서비스를 국립연구원이나 국가결핵관리단체에 제공.

(2) 세균관계 훈련에 있어서 WHO/일본국제결핵과정과 협력하며, WHO의 요청에 의해 국가결핵 관리체계내에서의 최신 결핵진단검사 방법에 대한 검사기기의 개별훈련을 담당하고 세균검사의 정도관리 체계 수립을 위한 운용면에 협력.

(3) 진단검사방법의 정도관리, 검사기술의 간편화와 표준화에 관해서 공동연구를 조정하며 서태평양지역에서의 마이코박테리아 약제내성 유병률에 대한 주문역할을 담당.

(4) 결핵관리 일차보건진료로의 통합, 의료보험 참여 및 결핵관리에서의 민간 의료기관 문제등 WHO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결핵문제에 대한 지역내 연구조사 조정.

(5) WHO 요청시 결핵상황 및 분석결과 평가를 위한 계획작성과 의정서 시행에 관해서 서태평양지역내의 결핵관리에 대한 시행방법 자문과 통제업무를 지원.

(6) 결핵관리자, 역학자, 검사기사 및 상급 간호사들에 대한 결핵역학 및 결핵 관리에 대한 훈련을 실시.

3. 사업계획

협력기관으로서의 주요사업계획은 첫째로 결핵연구원장 홍영표박사 책임하에 결핵에 관한 역학적 연구기관으로서 한국의 결핵감염위험률에 관한 역학적 모델 설정의 기대성과를 갖고 1995년 전국 결핵 발병률 및 감염위험률 조사를 실시하고, 둘째로 류우진 역학 및 기술협력부장의 책임하에 WHO 국제결핵관리훈련으로서 결핵관리의 질 향상을 기대성과로 정기 국제결핵관리 훈련을 실시, 마지막으로 김상재 미생물부장의 책임하에 결핵자문검사소로서 관련 국가 결핵검사업무의 표준화와 정도관리를 위한 능동적 역할 담당의 기대성과를 기대하며 세균검사의 관리 및 자문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계획과 주요활동을 통해 그동안 결핵연구원이 쌓아온 연구, 기술, 훈련실적 등 결핵에 관해 축적된 우리의 지식과 경험을 세계 여러나라에 공식적, 직접적으로 제공하고 이를 통해 인류복지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위상을 국제적으로 더욱 증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